

화려함 덜어내고 인간미 더하다

시애틀미술관 소장 영산회상도 국내 전시 계기로 '조선불화' 특집



美 시애틀미술관 소장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석가모니불' 보존처리를 거쳐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전시 중이다.

영취산에 올라 수백 명의 제자들을 앞에 두고 설법하시는 석가모니부처님의 모습은 얼마나 장엄할까. 국립중앙박물관(02-2077-9000) 불교회화실이 공개한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석가모니불 영산회상도(靈山會相圖)'에서 그 장엄함을 엿볼 수 있다.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석가모니불'은 미국 시애틀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조선 불화이다.

11월 21일~2007년 1월 21일 열리는 이 전시에서 공개된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석가모니불'은 아홉 쪽의 삼베를 꼼꼼하게 이어 만든 높이 380cm, 폭 321cm의 삼베 바탕 위에 그려진 불화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2005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해외소재 한국문화재 보존처리 지원사업의 첫 번째 수혜 작품이기도 하다. 이 지원사업은 해외 한국 문화재조사 사업의 일환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가 2005년부터 해외 주요박물관 소장 한국문화재를 대상으로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문화재 중 보존처리가 시급한 유물에 대해 보존처리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이다.

이번에 공개된 시애틀미술관 소장 조선불화는 60여년간 수장고에 보관된 것을 2002년 부임한 큐레이터 시라하라씨 신청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보존처리한 작품이다. 화면의 녹색 안료가 많이 없어지고 필선마저 흐릿해진 상태로 고국으로 돌아온 '영산회상도'는 보존처리를 거쳐 고국민들과 만나고 있다. 서울 전시가 끝나면 2007년 상반기 재개관하는 미국 시애틀미술관으로 돌아가 한국의 대표 미술품으로 전시된다. '영산회상도' 공개를 계기로 조선불화의 특징을 살펴보자.

본존불 등극계 에워싸는 중앙집중식 구도로 변화

고려시대 즐겨쓰던 화려한 문양 대신 다양한 색 활용

조선시대는 억불숭유 정책으로 불화 역시 고려시대에 비하면 침체기였다. 그러나 조선 초기 중종명종 대의 불화들은 고려불화의 기법적 특성을 이어받으면서도 높은 품격을 선보이는 명작들로 인정받는다.

침체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행화는 고려시대보다는 조선시대에 더욱 성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패불을 비롯해 104위 신중, 칠성, 산신행화가 등장했으며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있는 감로탱이 신선화를 선사한다.

족자 형식으로 대변되는 고려시대 행화는 조선시대로 넘어와 가로 길이가 길어지면서 본존을 등극계 에워싸는 중앙집중식 구도로 변화한다. 지지사 석가모니 후불탱의 경우 높이의 제약으로 인해 고려불화와는 다른 도상의 변화를 확연히 느낄 수 있다. 중앙집중식으로 주존불을 강조한 것이다.

서민의 정취를 느끼게 했던 짙고굵거나 소박한 백자처럼 조선시대 불화 역시 고려시대보다는 덜 화려한 대신 좀더 인간적이고 친숙한 상호를 선보이는 쪽으로 변모한 것도 조선불화의 특징이다. 조선불화가 고려불화와 다른 점 가운데 하나는

색채의 다양화다.

고려불화는 붉은색(朱), 녹색(綠), 군청색(靑)의 삼색을 기본으로 색을 절제해 사용되고 있다. 이에 비해 조선불화는 다양한 색채가 불화를 좀더 화려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고려시대에 비해 문양이 적어지는 대신 황토색 분홍색 하늘색 등 서로 대비되는 색으로 화려하게 채색된 채운(彩雲)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 조선시대에서도 적색색을 주조로 쓰던 전기와 달리 푸른색을 주조로 쓰던 후기에 서로 색상의 변화를 보인다.

필선은 직선의 사용이 두드러진다. 서양 화법의 수용과 더불어 원근법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서 보다 경직된 화면 구성을 했다는 견해도 있다.

고려시대의 귀족불교적 성격과 달리 보다 서민화 대중화된 불교는 조선시대에 와서 특성별 전각의 성격과 명칭을 확정지었다. 덕분에 전각별 다양한 행화를 생산해 내는 결과를 드러냈다.

불보살을 모시는 상단탱화, 불법을 보호하는 신중을 그린 중단탱화, 중생 영혼의 극락왕생을 비는 하단탱화 등이 기본적인 구분이다.



지지사 석가모니 후불탱. 고려 불화의 2단 구조가 무너지고 주존인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보살 제자 나한들이 둘러싼 조선불화 특유의 중앙집중식 구조를 확인할 수 있다.

행화 외에 몇 점 남아 있지 않지만 후불벽화도 찾아볼 수 있다. 조선 전기 사찰 벽화의 원형은 수종사 금동불갑 후불벽화다. 안동 봉정사 대웅전의 영산회후불벽화 역시 전기의 작품. 강진 무위사 극락전의 백의관음도(보물 제1315호), 고창 선운사 벽화 등은 조선 후기에 제작된 후불벽화이다.

감로탱(甘露幀)은 조선시대에서만 만날 수 있는 독특한 불화다. 동시대를 전후해 중국 일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양식으로 수록제나 사십구 때 쓰이는 의식의 불화이다. 감로탱은 모든 중생의 영혼을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극락으로 왕생케 하는 내용과 함께 그 시대 생활상을 담고 있어 문화사연구에도 귀중한 자료이다.

김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단추를 달며

바늘귀에 실이 잘 들어가지 않는 밤
문득 이불 깎던 등 굽은 실루엣
내 모습 어머니 같이 손을 묻고 앉았다
세월을 떨리며 바람결 흘러가고
빨랫줄에 햇살 함께 너울대던 하얀 홍명
울음이 건넌 시간, 숨바꼭질 하던 아이
플럭서스 이불 매칭마루 위에 텅빈
바삭 마른 팔뚝 향기 은은한 품속에서
영성이 활짝 불어던 소리, 그 목소리 듣고 싶다

'유심' 첫 시조백일장 장원

김선화씨 '단추를 달며'



계간문예지 <유심> 겨울호가 운치 있고 여유로운 시조 한 마당으로 채워졌다. <유심> 겨울호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만해 스님의 시사상을 계승해 처음으로 시조백일장을 제정하고 첫 수상자를 발표했기 때문이다.

2006 만해축전에서 현대시조100주년 행사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이근배 시인은 유심시조백일장 심사위원을 맡아 "장원 '단추를 달며'는 269편의 응모작 가운데 단연 탁월하다"며 "바늘에 실을 꿰어 단추를 달면서 어머니를 떠올리는 지금과 평범한 발상을 김선화씨는 조각보를 누벼가듯 살아있는 언어로 또렷이 그려내 가슴에 들이밀고 있다"고 심사평을 밝혔다.

장원을 따낸 김선화씨(사진)는 "주옥같은 시와 시인의 세계는 막연한 동경의 대상이었다"며 "'단추를 달며'는 치매에 걸려 아기가 되어도 용기를 주는 어머니를 그리며 지은 시"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차상은 김용희씨의 '제부도에서', 차하는 권영희씨의 '물한동 가는 길'이 차지했다.

<유심> 겨울호는 원로 시조시인 '백수 정완영 시인의 대답', 박찬일 시인의 '정완영론', 이지열 정수자 홍성란 시인의 '현대시조 100주년 기념 특별좌담-이제 하나 되어 겨레의 시를 계속 노래하라' 등 시조에 집중했다.

대담에서 올해 미수를 맞은 정완영 시인은 "인생은 하나의 미열을 잃는 것이다. 자고 나면 근심이 생기고, 가보고 싶은 곳도 있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생기고, 이렇게 미열을 잃는 것이 인생이라면 '예술은 그 통증이다', 몸부림치는 것이다"라고 시조 창작을 표현한다. 하루 10시간씩 시조 창작에 매달릴 정도로 시조에 대한 탐구를 멈추지 않는 노 시인의 젊은 창작열을 엿볼 수 있다. (02)730-2551 김지연 기자

영산재 학술세미나, 12월 11일 신촌 봉원사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보존회에서 제4회 불교학과 영산재 학술세미나를 12월 11일 오후 1시 신촌 봉원사 범용대학 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명복 교수(동국대 법학과)가 '불교와 법-불교와 인간'을, 김홍우 명예교수(동국대 연극과)가 '연극적 측면-불교의례와 연희적 측면'을, 김갑기 교수(동국대 국문학과)가 '영산재의 국문화적 측면'을, 장휘주 박사(서울대 국악과)가 '반' 및 '소리 연구'를, 최로연 박사(티베트불교고등연구소 객원연구원)가 '티베트 불교의식의 수행적 의미'를, 이재주 교수(서울대 체육학과)가 '불교와 무용'을, 능화 스님(동방대학교대학교 겸임교수)이 '영산재 전승'을, 이명환 박사(일본 용국대)가 '한·일 불교음악'을 각각 발표한다. (02)392-3234 김지연 기자

정신 동양의 자랑 長壽청국장

동강 백운산 토종

長壽

정국장분말

정국장완

친환경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콩으로 만든 長壽 청국장 분말과 한

▶ 청국장이 우리 몸에 좋은 것은 조상 대대로 각 문헌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고 현재에도 많은 학자들이 연구 개발하여 논문이나 책자에 실려 있습니다. 하지만 재료가 좋아야 좋은 청국장 분말이나 완을 만들 수 있기에 長壽 청국장 분말이나 완은 정선동강알 청정지역에서 친환경 농법으로 재배하여 조상님들의 재래방식 그대로 가마솥에 적정온도로 삶아 콩포장에서 숙성, 네치된 규이 죽지 않는 40℃에서 장시간 건조하여 분쇄한 것이 長壽 청국장 분말입니다.

▶ 분말로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암반수를 이용하여 완을 만들어 희석이 잘되므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드실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량생산이 아닌 소량 생산을 고집하며, 최고의 품질로 우리 몸에 좋은 식품을 만들어 건강하게 장수하실 수 있도록 정진하는 동강백운산토종입니다.

◆입금계좌 : 농협 315012-51-078352 백운하

주문 및 문의전화

(033)378-4312

010-4634-4311

청국장 분말 1kg 35,000원

청국장 완 500g 25,000원

완 1kg 12,000원

바로보인의 책들

대한 문제의 선사상역사 / 지사

<바로보인 환단고기 전 5권 출간>

과학도 밝히지 못한 태초와 우주탄생의 비밀, 더불어 웅장한 우리의 고대를 밝혀주는 환단고기, 근본성품으로부터 비롯하여 전우주, 지구촌으로 이어온 광대무변의 역사와 진리를 전강대선사의 인가제자인 대원 문제의 선사상역사 일체증거를 풍성한 명안증거의 안목으로 밀밀하게 바로보았다.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1, 2권 출간>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는 대한 문제의 선사상역사 제자들의 질문에 답한 선수행 문답집이다.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이렇게 밀밀한 점검과, 오우보림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성의 원리까지 온전하게 통달하여 남달리 실한 이러한 법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소중한 인연을 위한 정성

영양만점 다이어트식품

100% 천연

산야초 오곡조청

◆ 산야초 오곡조청 한 술갈에는 한끼 공양의 영양분이 농축 되어 있습니다. 오곡(쌀, 수수, 조, 검정쌀, 옥수수)과 옛 질금(100% 국내산)만을 써서 몸에 이로운 산야초 달인 물과 함께 정성껏 사체 만든 전통식 조청입니다.

옛날, 병약한 어느 스님은 오곡조청과 생수만을 드시고 백일 기도정진하여 지병의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기도정진할 때, 여행 다닐 때, 땀·턱 드실 때 속을 편하게 하고 든든한 요기가 되어주는 영양간식!

산야초 오곡조청은 불자님들의 좋은 인연입니다.

영양만점 다이어트식품 산야초 오곡조청 1.2kg = 48,000원

천연물엿 웰빙자연당 1.1kg = 18,000원

산사조청원의 명품

웃이오르지않는 山寺참웃 조청 1.2kg

어혈, 냉증, 위장장애, 피로 독소, 적체의 해소, 신경조음, 향안, 원기회복등에 기여

6년전 신도라지로 만든 山寺약도라지조청 1.2kg

기관지, 천식, 기침, 거담, 배농작용, 폐기능, 호흡기질환, 피로회복등에 기여

● 주문전화 : 054)372-3166

● 입 금 처 : 농협 727077-52-056761(현소회)

맑은 마음 깊은 정성 山寺조청원

양지 국악사

무용 국악용품 전문 매장

양지국악기 제작소

태고(절북), 승무복, 모듬복, 장고, 징, 쟁과리

◆ 국악기에 대한 자부심이 남다른다

◆ 전통의 아름다움 그대로 제작 합니다

◆ 더 저렴한 가격과 더 좋은 품질로 다가 갑니다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